

- 활동보고자료 -

자치단체명	경상남도	동아리명	RE-(E)vering Emerge
발표자명	박근우(창원고등학교) Park KeunWoo (ChangWon High School)		
활동명	'온실기체를 줄여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		
활동기간	2015년 3월 ~ 2016년 6월 현재		
활동장소	학교내 및 학교밖 인근, 사이버(SNS-facebook)		
참가인원	총 11명 (박근우, 김병용, 김장현, 박준형, 정재훈, 김준영, 명희수, 정민규, 여강인, 이동욱, 한경완)		
발표방법	PPT를 활용한 발표		

● 활동을 시작한 경위

본 동아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과학과 환경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모임입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인류의 공동해결과제인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각자 흥미있는 교과목과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온실기체를 줄여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라는 큰 주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 활동내용요약

저희 동아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학교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온실기체 줄이기 활동'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크게 두 가지 분야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물품을 이용한 재활용품 만들기이고, 다른 하나는 온실기체도 줄이고 결식아동도 돕는 음식물남기지 않기 캠페인인 '다섯 숟가락 더'활동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제작활동은 버려진 물건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만들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버려진 탁자, 천, 우유팩 등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지구환경시계, 화이트보드 지우개, 급식카드집, 간이에어컨, 샤워기 홀더, 종이박스 스피커, 필통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샤워기 홀더를 테스트해본 결과 물의 양을 1/3을 줄였고, 종이박스 스피커는 3년째 사용 중입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온실기체도 줄이고, 그 활동으로 결식아동도 돕자는 의도로 시작된 '다섯 숟가락 더'캠페인활동입니다. 급식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남긴 음식물 양을 학생수로 나누었더니 학생 1명당 다섯 숟가락만 더 먹으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활동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및 운영중이며, 활동대상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사이버상의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오프라인활동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급식소 현장설문조사분석과 캠페인관련 피켓홍보활동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활동으로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사진을 게재하면 지역기업인의 후원을 받아 1장당 400원의 적립금으로 지역 및 아프리카 기아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SNS(facebook)에서 '다섯 숟가락 더'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자동차스티커, QR코드와 캠페인내용을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지와 열쇠

고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캠페인 참여 UCC를 만들어 유튜브(Youtube)에 게재하여 음식물 쓰레기 및 온실기체과다배출 문제가 우리들의 공동해결과제임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16년 6월 21일까지 총 5770장의 사진이 등재되었고, 총 5회 지역의 결식아동 및 아프리카 기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의 달 행사와 학교축제에서 동아리부스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및 기후변동관련물전시를 하였고,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합하여 멸종동물열쇠고리만들기와 버려진 커피캡을 이용한 화분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결과 저희들은 2015년 경남청소년기후변화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경상남도지사상(최우수상)을, 2016년 2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녹색기후상(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최초로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온실기체배출을 줄이고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저희들의 학교생활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학과공부뿐만 아니라 인류의 당면과제인 기후환경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미래의 기후 환경 실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기후 환경변화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그린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